

인사말씀

지난해는 통합종단 50주년이면서, 종단 안팎의 여러 일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참회와 쇄신, 그리고 안정이라는 뚜렷한 방향속에 그릇된 관행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통해 쇄신의 길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종단의 쇄신이 단지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교·율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오늘 자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손수 논고를 준비해 주신 고우
스님과 쉽지 않은 일에 앞장서
주신 위원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들의 수고가 쇄신의 주추가
되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